

'96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

1. 廢棄物 問題의 原因

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, 산업화, 도시화를 들 수 있지만 최근 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經濟社會의 構造的 問題에 있다. 그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

첫째는 素材의 問題로서, 새로이 개발된 대부분의 소재는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분해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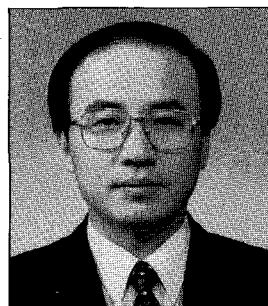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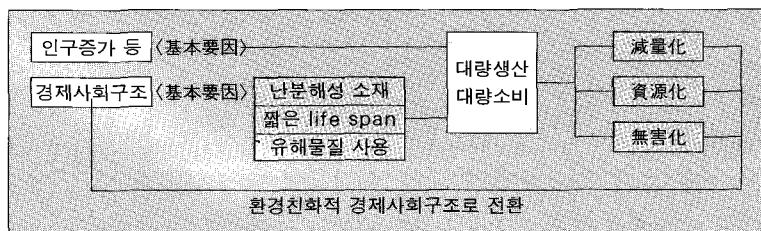
둘째는 製品의 life-span의 문제로서, life span이 짧은 제품이 대량생산·대량소비되는 경제사회구조는 자원의 소모, 폐기물의 대량발생 및 환경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궁극에 가서는 환경문제가 경제를 역으로 제한하는 반ESSD적 사회로 몰고가게 된다.

셋째는 有害化學物質 使用問題로서, 오늘날의 기계문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oil, 윤활유, 부동액, 질연유 등 수많은 제품에는 대부분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잠재적인 환경위협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도 있어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.

2. 廢棄物 管理政策 方向

廢棄物管理政策方向 - 環境親和的 經濟社會構造로의 轉換

- ⇒ 폐기물의 減量化 - 부피, 무게, 질 (독성, 분해성 등)의 감량화
- ⇒ 폐기물의 資源化 - 폐기물의 재사용, 재이용, 에너지회수
- ⇒ 폐기물의 無害化 -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



이규용/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

3. '96 廢棄物管理 施策

廢棄物減量化 對策

- 생활폐기물의 감량화

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보완·강화해 나가는 한편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사업을着手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갈 것이다.

- 사업장폐기물 감량화

아울러 '95년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인 목표율을 정하고 스스로 폐기물을 감량하는 노력을 하도록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의 통합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.

廢棄物再活用 對策

- 권역별재활용기반시설 확충

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·활용을 위해 권역별로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, '96년도에는 폐비닐재생처리시설 1기(영남권), 재활용품비축시설 1기(수도권), 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 3기 등 폐기물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
- 재활용산업 육성

아울러 취약한 국내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시설, 기술개발자금 등을 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 또한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하는 제조·수입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폐기물

일본 재활용시설 견학을 다녀와서

- 정부, 지자체, 관련업계, 시민의 노력으로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

을 자율적으로 회수,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해 일정율의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다.

- 폐스티로플재활용 대책 추진

또한 합성수지재질완충재의 감량화 촉진을 위해 폐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토록 할 방침이며, 시급이상지역에서는 '93.3.1부터 기타 군지역에서는 '97.1.1부터 시행하고, 감용기는 실시단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되, 감용기 구입비의 일정율(20~25%)을 (사)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.

廢棄物의 安全한 處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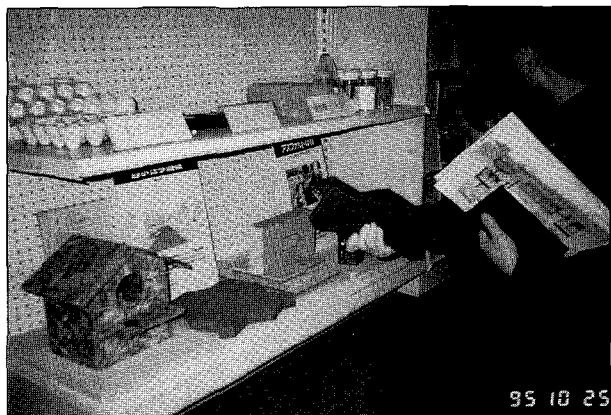
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특정폐기물처리시설 및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, 2001년까지는 위생처리율을 100%로 제고할 방침이다.

4. 맺음말

폐기물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, 유통, 소비의 각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.

특히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은 기업과 소비자의 협조없이는 실행이 곤란하며 앞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.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시책은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, 규제적 조치는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.

또한 정부는 스티로폴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·재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업계와 협조하여 폐플라스틱이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.



95.10.25

(사)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정부, 언론사, 여성단체 및 회원사 등 14명이 참가하여 일본의 재활용정책, 지자체의 재생사업, 대형 유통업체의 스티로폴 감용실태 등을 견학하는 민·산·관 협동 해외시찰을 실시했다. 따라서 이번 견학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.

<편집자註>

■ 일본의 스티로폴 재활용 현황

일본의 스티로폴 재활용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부 및 지자체, 관련업계,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회수·감용 및 재활용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.

스티로폴 회수체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'지자체 회수',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'사업자 회수', 가전대리점에서 배출되는 것은 스티로폴 처리 거점인 EPSY-PLAZA 또는 사업자가 회수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스티로폴은 생활쓰레기와 같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공장에서 처리, 그 폐열을 전기 생산 등 재활용하고 있었다. 우리나라와 일본의 폐스티로폴 재활용 현황은 <표1>과 같다.